

1990년대 북한의 체제정당화 담론: ‘우리식 사회주의’와 ‘붉은기철학’을 중심으로

김근식(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

◁ 목 차 ▷

- I. 문제의 제기 : 주체사상의 순수이데올로기화
- II. 우리식 사회주의: 사회주의 붕괴시기 체제정당화 담론
- III. 붉은기철학: 수령사망 이후 체제정당화 담론
- IV. 결론에 대신하여: 주체사상의 추상화 가능성?

I. 문제의 제기: 주체사상의 순수이데올로기화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는 ‘집단 혹은 공동체의 신념, 생각, 태도, 특징의 집합체’¹⁾로 정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데올로기는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을 보는 눈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philosophy)과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시도하는 ‘이론’(theory)과 구별되는 지점이 있는 바, 그것은 이데올로기가 뚜렷한 ‘목표정향성’(goal-oriented)과 ‘행동지향성’(action-oriented)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²⁾ 즉 이데올로기는 통일된 세계관을 부여함으로써 현실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직접 동기화

1) John Plamenatz, *Ideology* (New York: Praeger, 1970), p. 15.

2) Roy Macridis and Mark Hullung, *Contemporary Political Ideologies* (New York, HarperCollins, sixth ed., 1996), p. 3.

(motivation)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설정과 행위유발의 특징으로부터 이데올로기는 이른바 대중에게 '정당화'(legitimization)와 '동원'(mobilization)의 기능을 하게 된다.³⁾ 이데올로기는 대중에게 일관된 사고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정치리더십과 사회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아울러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동원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이같은 기능은 특히 사회주의체제에서 가장 극대화되는데, 그것은 사회주의가 무계급사회의 실현, 공산주의적 인간형 창출 등 보다 높은 목표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혁명 이데올로기는 현실을 사회정치적으로 규정된 개념에 맞춰 재구성함으로써 대중에게 체제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legitimation)을 하고 이를 통해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동원(mobilize)하게 된다.⁴⁾ 즉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혁명 이전에는 사회주의 혁명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혁명 성공이후에는 사회주의 건설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공하며 체제의 위기상황에서는 이를 이겨내기 위한 위기관리의 정당화 담론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서만(F. Schurmann)은 사회주의체제의 이데올로기를 관념과 행동의 연결체계가 간접적인가 혹은 직접적인가에 따라서 '순수이데올로기'와 '실천이데올로기'로 구분하고 있는 바, 순수이데올로기는 개인에게 일관되고 의식적인 세계관을 제공하는 사고체계(set of ideas designed to give the individual a unified and conscious world view)로 정의되며 실천이데올로기는 개인에게 행동의 합리적 도구를 제공하는 사고체계(set of ideas designed to give the individual rational instruments for action)로 규정된다.⁵⁾ 이때 순수이데올로기

3) *Ibid.*, p. 9~11.

4) Cha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 15.

5) 이에 따라 서만은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면서 순수이데올로기는 추상적 세계관을 제공하는 맑스레닌주의이며 실천이데올로기는 실천의 원칙과 방법을 제공해주는 모택동사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맑스레닌주의의 진리가 중국의 혁명과 건설의 실천경험을 통해 실천이데올로기로서 모택동사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본 것이다.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없는 실천이데올로기는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실천이데올로기 없는 순수이데올로기는 그 세계관을 일관된 행동으로 전화시킬 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목표'를 보다 강조한 것이 순수이데올로기라면 실천이데올로기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실천원칙'에 보다 강조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 이러한 점에서 실천이데올로기는 순수이데올로기의 구현을 위한 실천과정에서 구체적인 현실 여건과의 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이는 사회주의의 혁명과 건설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한 원칙들이었다. 그리고 이 순수이데올로기와 실천이데올로기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는 대중들에게 '체제정당화' 기능과 혁명과 건설에로의 '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북한의 공식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 역시 순수이데올로기와 실천이데올로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후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자신의 힘에 의거한다는 '주체적' 입장의 확립으로 시작되었던 주체사상은 당연히 맑스레닌주의라는 순수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북한적 실천의 산물이었다. 당시 주체사상의 내용은 자력갱생의 원칙, 중공업우선 노선, 종파주의와 사대주의에 대한 반대, 정치사상 우선 방침, 유일적 지도체계 등이었으며 이는 곧 1950년대 이후 북한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의 노선과 원칙을 집대성한 일종의 '실천이데올로기'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 실천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은 1970년대에 종합적 체계화를 거치면서 철학적 원리를 가진 세계관까지 구비하게 되고⁷⁾ 이후 1980년대에는 맑스레닌주의의 대체로까지 주장하게 되었다.⁸⁾

(Berkele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pp. 18~24.

- 6) 이는 혁명적 이데올로기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서 궁극적 유토피아의 이미지인 '목표 문화'(goal culture)와 목표문화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형성을 안내하는 규범으로서의 '전이문화'(transfer culture)의 개념구분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대해서는 Anthony Wallace, *Culture and Personality* (New York: Random House, 1961), p. 148 참조.
- 7) 이에 대해서는 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2. 9)" 『김일성저작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pp. 268~295 참조.
- 8) 이의 대표적 문헌으로는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8~81 참조.

주체사상은 이제 맑스레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구체적 방침과 수단으로서의 '실천이데올로기'(practical ideology)에서 자신의 진리를 토대로 실천을 위한 구체적 원칙과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순수이데올로기'(pure ideology)로까지 격상된 것이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주체사상이 순수이데올로기로서만이 아니라 실천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주체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적 원리 및 지도적 원칙으로 구성되는 '협회의' 주체사상은 분명히 혁명과 건설의 세계관을 제공해 주는 순수이데올로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로 규정되는 '광의의' 주체사상은⁹⁾ 보편적 철학원리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혁명이론', '건설이론', '영도방법' 등 혁명과 건설의 구체적 원칙과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이데올로기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천이데올로기로 출발했던 주체사상이 순수이데올로기로 격상된 시점에서 북한은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불균형과 폐쇄성에 기반한 자립노선, 일원화된 유일적 정치체제, 비효율적 계획경제체제, 지나친 개인숭배 문화 등은 1970년대 이후 내연되었던 북한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고 급기야 사회주의권의 전면적 붕괴와 맞물리면서 1990년대에 체제 자체의 위기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사상최대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위기관리를 위한 체제정당화의 기능은 주체사상의 이름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위기 타개의 정당화 기능을 수행해야 할 실천이데올로기가 이미 순수이데올로기로 결합되어 버린 상황에서 주체사상은 이를 원만히 수행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오히려 주체사상은 보다 공고화된 추상적 형태의 '순수이데올로기'로 존재하면서 위기관리를 위한 현실적 정당화

9) 광의의 주체사상을 가장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것은 조선로동당 창건 40돐을 기념하여 사회과학출판사에서 출간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시리즈이다. 독창적 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뿐 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위한 구체적 이론과 방법까지를 포괄하는 총서 10권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1권),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 원리」(2권),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3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론」(4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5권), 「인간개조이론」(6권), 「사회주의경제건설이론」(7권), 「사회주의문화건설이론」(8권), 「영도체계」(9권), 「영도방법」(10권). 이중 1~3권은 사상, 4~8권은 이론, 9~10권은 방법을 의미한다.

작업은 그로부터 파생한 변용담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순수이데올로기로 격상된 주체사상 대신에 또 다른 체제정당화 담론의 제시를 통해 '정당화'와 '동원'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대신했던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북한의 위기관리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으로부터 파생된 하위 수준의 정당화 담론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되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보다 유의미하다. 이에 따른다면 북한은 심화된 대내외적 위기상황에서 대중을 사회주의에로 결집시키고 체제정당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주체사상에 토대한 하위담론으로서 1990년대 초반에는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김일성 사망이후에는 이른바 '붉은기철학'을 내놓았다.

이를 전제로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 북한의 체제정당화 담론으로서 '우리식 사회주의'와 '붉은기철학'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주체사상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주체사상의 파생담론들이 북한의 위기상황 극복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고찰하고 향후 북한 이데올로기의 변화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II. '우리식 사회주의': 사회주의 붕괴시기 체제정당화 담론

1990년대 북한의 위기는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구조화된 경제난은 체제의 정당성을 위협할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사회주의권의 총체적 붕괴는 사회주의 북한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만큼의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타격을 주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붕괴가 한참이던 당시는 북한이 새로운 정당화 담론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밖으로는 믿었던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이 급격하게 자본주의로 복귀했고 이는 다시 안으로 영향을 미쳐 경제적 위기와 함께 북한 사회주의의 자체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흔들리게 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북한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인민에게 확인받고 그로부터 위기를 돌파해 낼 수 있는 전체인민의 동원을 조직화해 내야 할 시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새롭게 제시된 정당화 담론이 바

로 '우리식 사회주의론'이었다.¹⁰⁾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있는 정세에서 인민들을 지속적으로 혁명과 건설에로 추동하고 동원해낼 수 있는 논리가 필요했고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했다. 즉 "우리는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할 것"이라는 사회주의 견지의 원칙과 "우리 사회주의는 망한 나라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것"이라는 우리식의 우월성 원칙이 동시에 결합되어야 했고 이것이 바로 '우리식 사회주의'로 나타났다.

김일성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9기 1차회의의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사회주의를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로 정의하고 그 기본특징으로 "인민대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라고 설명하였다.¹¹⁾ 북한식 사회주의가 인민대중 중심의 우월한 체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1990년 12월에 김정일은 다른 사회주의가 좌절하는 것과 달리 북한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독자적인 우리식의 사회주의인 탓에 필승불패임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¹²⁾ 곧이어 근로자에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로서 주체사상을 규정한 논문¹³⁾과 우리식 사회주의가 위대한 당의 영도에 의해 실현되었음을 강조하는 논문¹⁴⁾이 실렸다.

10)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는 「안보연구」, 24호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94)에 특집논문으로 실린 5편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강성윤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이미 목표이념으로 변화한 주체사상을 현실화하는 실천 이념"으로 규정하면서 주체사상을 대신하는 새로운 실천이데올로기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강성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출현과 전개과정," 「안보연구」, 위의 책, pp. 5~17쪽 참조.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당시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체제정당화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행동의 준거나 구체적 정책의 지침을 제공하는 실천이데올로기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우리식 사회주의는 당시 사회주의권 붕괴의 상황에서 다른 사회주의국가와의 차별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설명논리였다고 할 수 있다.

11)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1990.5)" 「김일성저작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265.

12) 김정일,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이다,"(1990.12) 「김정일 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471~510.

13) 리제일,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 「근로자」 (1990년 12호) pp. 23~28.

14) 최영림,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빛내어나가는 위대한 당," 「근로자」 (1991

이는 후일 우리식 사회주의의 핵심적 개념구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식 사회주의의 이론적 정립화는 1991년 5월의 김정일 담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에서 본격화되었고 이후 김정일의 후속 논문을 통해 그 내용과 의미는 더욱 체계화되었다.¹⁵⁾

1990년대 북한의 정당화담론으로 등장했던 우리식 사회주의의 개념적 내용은 크게 ‘사회주의 일반원칙의 고수’와 ‘북한식 우월성 강조’로 정리될 수 있다. 즉 우리식 사회주의 담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는 점과 그것은 바로 북한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의 노선, 즉 주체사상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몰락한 사회주의와 다른 차별성과 우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개념은 주체사상의 견지라는 ‘우리식’과 사회주의 일반원칙의 고수라는 ‘사회주의’의 결합으로 파악될 수 있다.

우선 ‘우리식 사회주의’의 후자의 내용, 즉 사회주의 일반원칙의 고수는 김정일의 논문 곳곳에서 소련 동구의 개혁개방을 보편적인 사회주의 원칙의 이탈과 포기로 비난하면서 북한은 그같은 제반원칙들을 견결히 고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회주의의 일반원칙들로 우리는 당우위 국가, 일당제, 사회적 소유, 계획경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완전히 포기된 것들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줄곧 이 사회주의의 일반원칙들을 고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당우위국가의 정당성에 대해 “참다운 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밑에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만 보장”¹⁶⁾ 될

년 2호) pp. 17~22.

- 15) 우리식 사회주의론의 체계화와 관련된 김정일의 후속논문으로는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1992.1)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1992.10) “사회주의에 대한 험방은 허용될 수 없다”(1993.3)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 등이다.
- 16)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351. 당우위국가의 정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당의 영도밑에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할 것”¹⁷⁾임을 천명하고 “당의 영도가 사회주의위업의 생명선”¹⁸⁾임을 역설하고 있다. 일당제에 대해서도 김정일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이른바 다원주의는 허용될 수 없다”¹⁹⁾고 강조하면서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다원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나아가 당내에서도 “민주주의만을 내세우면서 당 안에서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보장하지 못한 것”이 사회주의 붕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노동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역설하고 있다.²⁰⁾ 마찬가지로 생산관계의 사회적 소유에 대해서도 김정일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가 “착취와 압박을 낳고 근로자들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무제한한 약육강식의 경쟁일 뿐”²¹⁾이며 따라서 사회적 소유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고 밝히고 있다.²²⁾ 계획경제 역시 김정일은 개별기업의 독자성을 내세우고 국가의 지도와 통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인민경제를 국가의 통일적 지도밑에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²³⁾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에 대한 정치적 영도와 중앙집권적인 계획적 지도는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기본임무의 하나”²⁴⁾라는 것이다.

당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창익,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 「근로자」, (1991년 8호) pp. 7~11; 편집국토론회, “노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사회의 유일한 향도적 역량이다,” 「근로자」, (1991년 10호) pp. 3~8 참조.

- 17)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1992.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456.
- 18)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1990.10)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313.
- 19)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p. 434.
- 20)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동경: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구월서방, 1992), p. 22.
- 21)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p. 355.
- 22) 이에 대해서는 김재서, “사회적 소유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발전의 합법칙적 요구,” 「근로자」, (1991년 8호), pp. 17~21 참조.
- 23)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p. 458.
- 24)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해방은 허용될 수 없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19.

결국 김정일은 사상에서의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방식이라 규정하고 북한은 기필코 사회주의의 일반원칙들을 고수견지할 것을 역설하였다.²⁵⁾ 현실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복귀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통해 사회주의 일반의 원칙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몰락한 사회주의국가와는 다른 '사회주의 고수'라는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자의 내용, 즉 '우리식'이 가지는 의미는 북한의 독특한 사회주의 건설노선인 바, 그것은 '주체사상의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의 일반원칙을 고수하면서 조금은 다르게 '우리식'이라는 언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며 여타 사회주의 국가가 봉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회주의의 길을 계속 고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식'의 차별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의 첫번째 차별성과 우월성은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에서 나타난다고 주장된다. 즉 북한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며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라는 것이다.²⁶⁾ 그리고 이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는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에서 고르게 구현되고 있으며²⁷⁾ 이를 통해 인민대중은 사회주의제도의 주인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리고 아울러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서 '값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²⁸⁾ 이에 따르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를 비방하고 있는 이른바 '전체주의'나 '병영식'이니 '행정명령식'이니 하는 개념은 북한식 사회주의가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부문에서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구현하고 있음을 무시하고 내놓은 궤변일 뿐이다.²⁹⁾ 오히려 북한식 사회주의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정

25)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p. 433.

26)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p. 338.

27) 이에 대해서는 리봉길,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 「근로자」(1991년 7호), pp. 21~25 참조.

28)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1994.11.1).

29)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 pp. 1~6. 다원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사회주의를 전체주의와 행정명령식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한 북한측의 비판은 교봉, 「사회주의 이론논쟁 조명」(지주철학학회, 1993), pp. 135~176

권이 수립되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고³⁰⁾ 인민대중이 주인인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와 경제관리체계, 그리고 평등하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³¹⁾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사상생활조건과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으므로³²⁾ 해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의미하는 또 하나의 '우리식'은 북한식의 '주체'가 가지는 우월성과 차별성으로 표현된다. 북한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회제도에서뿐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했다는 점에서도 그 우월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³³⁾이라는 전제하에 주체인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³⁴⁾를 구현했다는 점이 붕괴한 사회주의 국가와의 차별성과 우월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이론과 이에 입각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른바 물질경제적 조건에만 치우친 나머지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완성하고 생산력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만으로 사회주의의 실현을 전망했으나 이는 제한적이며³⁵⁾ 사회주의 건설은 오로지 그 직접담당자인 인민대중, 즉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참조. 또한 북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우월성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는 평양출판사 편, 「주체의 사회주의정치제도」(평양: 평양출판사, 1992); 주체정치학연구학회 편, 「주체정치학연구」(1990) 참조.

30)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리혜정, "우리식 사회주의정치생활의 우월성,"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 로작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에 관한 논문집」(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p. 51~78 참조.

31) 이에 대해서는 김기호,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자유롭고 풍요한 경제생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 로작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에 관한 논문집」, pp. 79~99; 리기반, "우리식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과 공고성," 「경제연구」(1994년 1호) 참조.

32)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리현순, "인민대중이 정신문화적 재부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어 우리는 사상문화생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 로작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에 관한 논문집」, pp. 100~127 참조.

33)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34)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궤방은 허용될수 없다」, p. 17.

35)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주체의 강화와 역할증대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상의식의 우선성 강조'이며, 또 다른 하나는 '혁명의 주체로서 수령·당·대중의 통일'이다.³⁶⁾ 사상의식 강조와 수령·당·대중의 통일에 의해 주체는 더욱 강화되고 그 역할증대가 이루어지며 이는 곧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소임과 동시에 여타 사회주의이론이 밝히지 못한 북한만의 독창적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 따르면 사회주의사회의 본질과 우월성은 '사회주의사상을 가진 인민대중에 의해 규정'(³⁷⁾)된다. 사회주의를 가름하는 결정적 요인은 생산력의 발전이 아니라 다름아닌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인 것이다.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과업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서도 사상혁명이 우선이고 인민들과의 사업에서도 사상사업, 정치사업이 우선하며 여타 사회개조, 자연개조보다도 인간개조가 가장 선차적으로 앞서는 과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식의 강조는 동전의 뒷면으로서 유일사상에 기초한 수령·당·대중의 통일을 필요로 한다.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근본문제로서의 공고한 단결은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합된 일심단결인 것이다. 사회주의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때 주체의 사상의식이 우선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 역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데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우리식이 갖는 '주체강조'의 의미는 생산력중심주의에 사로잡힌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사회주의 사상교양을 통해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나아가 수령·당·대중의 통일체에 의해 단결된 힘으로 주체의 강화와 역할 증대를 이룸으로써 불패의 공고성과 우월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주의 사회를 "높은 사상의식으로 무장되고 하나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의

36) 이에 따라 북한에서 "사회주의사회의 주체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인민대중이며 동시에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체"인 것으로 규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효, "주체의 사상제도는 혁명의 주체를 키우고 주체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사상제도," 「주체의 사회주의사상문화제도」 (평양: 평양출판사, 1993), pp. 45~55 참조.

37)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p. 430.

창조력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³⁸⁾라고 규정한 데서 축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 사회주의의 일반원칙들, 즉 당 우위, 일당제, 계획명령경제, 사회적 소유의 강화 등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한편으로 하고 이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과 인민대중의 사상의식 고양 및 혁명의 주체인 수령·당·대중의 통일체 유지라는 북한식의 ‘주체’의 우월성과 차별성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이같은 개념적 내용을 가지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당연히 주체사상을 사상적 기초로 하고 있다. 우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가 ‘사람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입장’에 입각하여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규정되고 있는 점³⁹⁾ 분명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적 원리가 기저에 깔려 있음을 알게 한다. 또한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제도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동시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결국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사람중심의 사상인 주체사상에 의해 규정되는 우월성”인 것이다.⁴⁰⁾

뿐만 아니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주체’ 강조의 내용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이 사회주의 건설의 근본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는 점도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주의 사회의 본질과 그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을 과학적으로 밝혀준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⁴¹⁾ 또한 이를 위해 물질경제적 토대보다 인

38)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39)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40) 신영균, 방명숙, “우리식 사회주의의 근본적 우월성,” 『철학문집 18』,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p. 19.

41) 김덕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본방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 토착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에 대한 해설문집』, (평양: 사

민대중의 사상의식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점이나 수령·당·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통일되어 있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것 역시 주체사상의 핵심원리인 사상우선과 수령론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사상혁명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생명선으로 된다는 사상은 주체의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방도를 과학리론적으로 해명한 사상”이며⁴²⁾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 역시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 단결”인 것이다.⁴³⁾

결국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1990년대 사회주의 붕괴시기의 체제정당화 담론으로서 주체사상에 토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사회의 전반적 체제원리인 주체사상이 구석구석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식 사회주의가 그 불패성과 공고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주장⁴⁴⁾은 곧 우리식 사회주의가 주체사상의 하위담론임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다. 1950년대 실천이데올로기로 형성된 주체사상이 1980년대 이후 순수이데올로기로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닥쳐온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북한체제의 방어기제 및 체제수호담론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는 등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의 길로 회귀하고 있을 때 자신들의 사회주의 건설을 다시 한 번 정당화시키고 당면한 체제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기상황은 결코 호전되지 않았고 이제 또 다른 체제수호논리가 요구되었다.

Ⅲ. ‘붉은기철학’: 수령사망 이후 체제정당화 담론

우리식 사회주의가 북한 사회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내세웠음에도 1990

회과학출판사, 1993), p. 145.

42) 김수기, “사상혁명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을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나서는 근본문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 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에 대한 해설론문집」, pp. 91.

43) 리은희,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은 우리나라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력,”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에 관한 론문집」, p. 131.

44) 림형구,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근로자」(1991년 7호), pp. 15~20.

년대 북한의 상황은 여전히 악화일로였다. 1992년부터 부각된 북핵위기는 사회주의 어느 국가의 원군도 없이 외롭게 북한이 헤쳐 나가야 할 지루한 싸움이었고 북한의 고립감은 더욱 더 커져만 갔다. 겨우 안팎의 위기로부터 헤쳐나오려 할 쯤에 갑자기 닥친 수령 김일성의 사망과 거듭된 수해는 북한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가능성마저 앗아간 느낌이었다.

우리식 사회주의가 내걸었던 차별성과 우월성, 즉 소련, 동구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주체사상에 의거한 우월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회주의의 원칙을 버리지 않겠다는 각오와 자기확인만으로는 1994년 이후에 닥쳐온 보다 심화된 위기를 타개하기 힘든 지경이었다. 구조적 경제위기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고 사회주의의 붕괴 속에서 자본주의에 포위된 고립무원의 국제적 압력은 더욱 거세만 갔으며 여기에 더해진 급작스런 수령의 사망은 북한으로 하여금 최대의 위기를 맞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더욱이 수십년 준비해 온 후계체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런 수령사망으로 붙어닥친 전면적 위기는 정치구조 내에서도 적잖은 알력과 갈등이 동반되었다. 최고조에 달한 체제위기 상황에서 맞이한 수령의 사망은 그 동안 잠복되었던 사상적 이견과 정책적 상이, 그리고 정치적 갈등을 수반하면서 향후 북한의 정책전망과 후계승계를 놓고 상당한 내부 진통을 결과한 것이다.⁴⁵⁾

이러한 위기의 심화 속에서 주체사상은 더 이상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강조만으로 대중으로부터 정당화와 체제수호의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없게 되었다. 사회주의 붕괴시기인 1990년대 초반에는 불안해 하고 동요하던 인민대중에게 우리식 사회주의론이 나름대로 자신감과 믿음을 줄 수 있었다면 이제 수령사망으로 맞이한 최대의 위기에서는 인민대중에게 자신감이 아닌 '버림과 인내의 집단적 의지'를 강조해야 했던 것이다. 날로 확대되는 체제에 대한 회의를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만으로 잠재 위기에는 벽찬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적 조건에서 주체사상을 이념적 토대로 하여 북한식 위기탈출

45) 이같은 갈등은 1997년의 황장엽 망명으로 표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근식, “북한의 권력승계과정과 당내갈등,” 『통일문제연구』, 11권 2호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9), pp. 64~82 참조.

의 과도기적 정치담론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1995년부터의 ‘붉은기철학’이었다.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직후만 해도 여전히 북한의 지배적 담론은 우리식 사회주의였다. 그 해 11월에 김일성 사망후 최초로 발표된 김정일의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도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이 강조되었고 이를 통한 승리의 확신이 역설되었다. 북한의 “사람위주의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우월하며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이고 따라서 우리식 사회주의는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는 불패성이 강조된 것이다.⁴⁶⁾ 마찬가지로 1995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아직 수령사망이 물고 온 전반적 체제위기는 우리식 사회주의론만으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졌다. 여전히 공동사설에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우월성’이 등장했던 것이다.⁴⁷⁾

그러나 1995년이 지나면서도 북한의 체제위기는 날로 고조되었다. 이제 우리식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또 다른 주체사상의 변용담론이 요구되었다. 1995년 8월에 처음 등장한 이른바 ‘붉은기철학’ ‘붉은기사상’⁴⁸⁾은 바로 이런 필요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붉은기철학의 첫등장은 1995년 8월 28일자 「로동신문」 정론 “붉은기를 높이 들자”를 통해서였다.⁴⁹⁾ 이 글은 수령의 사망으로 맞게 된 위기를 붉은기를 높이 들고 헤쳐 나가야 한다는 절박함과 결연함으로 가득차 있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식 사회주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 이제 배신과 변절 대신 신념과 일심단결로서 붉은기의 표대를 따라 끝까지 사회주의의 길로 가야 한다는 집단적 ‘버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⁵⁰⁾ 아울러 붉은기 정신을 압축적으로 표현

46)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47) 1995년 공동사설, ‘위대한 당의 평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로동신문」, 1995.1.1.

48) 당시 북한측의 문헌에는 붉은기철학과 붉은기사상이 혼용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붉은기철학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49) “붉은기를 높이 들자,” 「로동신문」, 1995.8.28.

50) 이 글에서는 “만약 눈물이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한다면 위대한 아버지를 잃고 것처럼 많은 눈물을 흘린 우리 인민은 영영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수령사망의 위기를 극적으로 표현한 뒤 세계정치사나 국제공산주의 운

한 “비겁한 자여 갈라지면 가라 우리는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구호가 이 당시 내외의 어려움을 우리식으로 이겨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불요불굴의 집단적 의지를 독려하는 붉은기 담론은 이때만 해도 아직 사상이나 철학으로 명명되지는 않았다.

이후 붉은기는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혁명의 깃발을 위해 일심단결과 신념으로 옥쇄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정치적 슬로간으로 발전하였다.⁵¹⁾ 북한 곳곳에서는 1990년대 적기가인 “높이들자 붉은기”의 노래와 함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돌격전으로 대중이 동원되었고 “혁명의 붉은기를 들면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이 기발을 버리면 사회주의가 망한다”고 역설되었다.⁵²⁾ 또한 붉은기는 “위대한 령도자를 따라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신념의 표대이고 일심단결의 상징이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정의되기도 했다.⁵³⁾ 아울러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리의 강조가 두드러졌다. 붉은기가 위기극복을 위한 체제유지의 정치적 담론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념과 의리로 뚫뚫몽친 일심단결의 도덕이 가장 소중하게 강조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1995년 10월 12일자 「로동신문」 사설 “신념과 의리는 우리의 생명이다”에서 배신과 변절을 비난하며 “신념과 의리를 지키면 값있는 삶, 값있는 죽음이요 그것을 버리면 너절한 삶, 너절한 죽음이다”고 강조하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⁵⁴⁾ 특

동사에서 “모든 변화와 우여곡절은 수령의 서거를 계기로 하여 생겨났다”고 지적하고 “바로 그것으로 하여 강하던 것이 약해지기도 하고 한길을 가던 것이 두길 세길로 갈라지기도 했으며 붉은 것이 희어지기도 했다”고 상황의 심각함을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민은 쓰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백배천배로 더 강해졌고 우리의 피눈물은 백두밀림에서부터 들고 온 조선혁명의 붉은 기를 더욱 붉게 물들였다”면서 위기 극복의 의지를 내세웠다. 이어 “신념이 강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붉은기를 들고 추악하고 비겁한 자들이 흰기를 든다”면서 붉은기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신념이 강한 당은 변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와해되지 않음”을 거듭 역설하였다. 어떡해서든지 체제위기를 버텨내야 한다는 집단적 의지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51) 편집국론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근로자」(1995년 9호), pp. 3~7 참조.

52)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억세계 전진해 나가자,” 「로동신문」(1995.10.4).

53) “위대한 당의 기치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자,” 「로동신문」(1995.10.10).

54) “신념과 의리는 우리의 생명이다,” 「로동신문」(1995.10.12).

히 이 시기는 김정일의 논문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1995.10)와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 리이다”(1995.12)가 발표된 시점이며 이들 논문들이 “김일성의 사상과 업적을 충직하게 계승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 것”을 강조하고 “혁명선배의 최고대표자는 수령이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적 의리의 최고표현”임을 역설한 점에서 이 역시 붉은기 담론의 체계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붉은기 담론은 점차 사회주의의 신념과 의리, 그리고 단결을 강조하는 북한사회의 정당화 담론으로 자리잡았고⁵⁵⁾ 이는 1996년 1월 1일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자”라는 제하의 신년 공동사설에서 본격화되었다.⁵⁶⁾ 즉 “붉은기는 우리의 신념이고 량심이며 투쟁의 표대”라고 강조하고, 들고 나가야 할 투쟁과 전진의 구호로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자’를 제시했던 것이다. 그후 붉은기정신은 김정일이 독자적으로 밝힌 혁명‘철학’으로서 그 내용이 체계화되어 나타나는 바, 이는 1996년 1월 9일자 「로동신문」의 정론 “붉은기는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⁵⁷⁾에서였다.

여기서 나타나는 붉은기철학의 특징을 보면 우선 그것이 김정일의 철학으로 규정되고 그리하여 김정일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설명된다는 점이다. 앞서 1995년의 「로동신문」 정론에서도 붉은기를 김정일의 신념과 철학으로 밝혔지만⁵⁸⁾ 여기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김정일이 붉은기에 담겨진 심원한 혁명철학을 밝혀 “력사상 처음으로 붉은기철학”이 나오게 되었다고 소개하였다. 붉은기철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55) “붉은기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여 온 승리와 영광의 한 해,” 「로동신문」 (1995.12.30).

56) 신년공동사설,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자,” 「로동신문」 (1996.1.1).

57) “붉은기는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로동신문」 (1996.1.9). 이하에 인용된 내용은 별다른 설명이 없는 한 이 글에서 따 온 것이다.

58) 이 글에 김정일의 1994년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두고 결국 ‘나의 사상이 붉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나 같다’고 언급한 대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붉은기의 사상적 연원을 김정일에게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붉은기를 높이 들자,” 「로동신문」 (1995.8.28).

넘겨주신 최고의 유산”이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안겨주신 가장 귀한 혁명의 탕식”이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붉은기철학은 단순히 위기극복의 집단적 의지를 강조하는 것 외에도 김정일을 중심으로 “평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혁명의 수뇌부를 견결히 지켜야” 한다는 수령옹위의 당위성을 강조하게 된다.

둘째, 붉은기철학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주체의 혁명철학’이고 ‘일심단결의 철학’이며 ‘신념의 철학’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붉은기철학의 핵심은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기식대로 살아나가며 자기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자주의 사상”이고, “그 어떤 배신도 동상이몽도 모르며 사소한 사상적 변질도 조직적 균열도 없는 완전무결한 일심단결의 기치”이며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사회주의위업을 달성하겠다는 불굴의 기상이다. 이러한 붉은기철학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당면한 사상초유의 어려움 속에서 인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견지와 북한체제 수호를 다시 한 번 확인케 하는 위기시대의 정치담론으로 제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붉은기철학이 대중에게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자기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 외에도 수령사망이후 당내의 정치적 갈등과 사상적 동요를 겨냥한 경고와 투쟁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붉은기철학이 일심단결의 철학임을 설명하면서 “단결을 저애하는 배신과 기회주의 조류와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붉은기와 회색기를 대립시켜 전후 반중파투쟁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즉 “우리는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 당에 도전해 나섰던 반당반혁명중파분자들의 책동을 붉은기사상으로 짓부시었으며 사회주의를 붕괴시킨 사회민주주의의 회색풍과 부르쥬아 황색바람도 붉은기정신으로 맞받아나갔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김일성 사후 당내에 불기 시작한 일부 회색적 조류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붉은기철학은 그 사상적 기초로 주체사상을 전제하고 있다. “붉은기철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힌 심오한 혁명철학”이라는 언급에서 보듯이, 주체사상은 여전히 순수이데올로기로서 붉은기철학의 모태역할을 하고 있다. 붉은기철학이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혁

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높여 혁명을 다그쳐나가게 하는 주체의 혁명정신”으로 설명되고 이로써 “사회주의 강행군을 다그치는 힘이 사상에 있음”을 전제하고 “사상의식을 최대한 높여 사상의 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⁵⁹⁾ 또한 “붉은기사상은 수령중심사상이며 붉은기사상의 의미와 내용은 혁명적수령관에 귀착”된다⁶⁰⁾는 규정도 명백히 주체사상에 토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붉은기철학이 “주체의 사상과 리념의 결정체”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붉은기철학은 주체사상의 위기상황에의 변용담론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붉은기철학은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 ‘고난의 행군’이라는 동원구호의 창출을 수반하였다.⁶¹⁾ 고난의 행군은 지금 북한의 위기와 어려움을 김일성이 항일투쟁과정에서 겪었던 1938년의 고난의 행군시기와⁶²⁾ 등치시키면서 대중들에게 시련과 난관을 뚫고 힘차게 전진할 것을 요구하는 대중동원의 구호였다. 북한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은 현재

59) 김덕유, “붉은기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강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철학연구』 (1997년 1호), pp. 15~16.

60) 위의 글, p. 18.

61) 붉은기철학이 본격적으로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던 1996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고난의 행군’이 대중동원의 주요한 구호로 등장하고 있음은 매우 유의미하다. 여기서 설명하는 고난의 행군정신은 “제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며 아무리 어려운 역경에서도 패배주의와 동요를 모르고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락관주의 정신”이며 그 어떤 안락도 바램이 없이 간고분투해나가는 “불굴의 혁명정신”이며 혁명의 사명부를 목숨으로 사수한 “수령옹위정신”이다.

62) 북한에서는 1938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몽강현 남패자에서 장백현 북대정자에 이르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행군을 ‘고난의 행군’이라 부른다. 그 기간은 약 100여일 동안이었는데 항일무장투쟁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였다고 김일성은 회고한다. “몽강현 남패자로부터 장백현 북대정자에 이르는 행군은 행군기간으로 보나 그 간고성으로 보나 종래의 행군들과는 대비도 할 수 없는 간고한 행군이었습니다. 행군기간이 100여일이나 되기 때문에 이 행군을 <100일 행군>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기간을 보면 사실 110여일이나 되는 행군이었습니다. 고생이 너무도 막심했기 때문에 그 행군을 가리켜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세기와 더불어 7(계승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150~151.

의 고통을 이겨내자는 그리고 이겨내겠다는 상하의 집단 의지가 결합되는 상징적 구호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행군정신은 붉은기철학이 사상적 동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일조했다.⁶³⁾

이렇게 체계화된 붉은기철학은 이후에도 계속 북한사회의 단결과 인내를 강조하는 정치적 담론으로 기능하였고 이는 “올해의 총진군을 다그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온 사회를 우리당의 붉은기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1997년 신년사에서도 잘 드러난다.⁶⁴⁾ 그리고 1997년 동안에도 붉은기철학에 의한 위기들과와 체제정당화 노력은 지속되었다.⁶⁵⁾

결국 ‘붉은기철학’은 수령사망으로 심화된 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중적 정당화 및 체제방어 기제로 활용되었고 그것은 사회주의의 신념과 일심단결의 원칙을 강조하고 나아가 당내 일부의 반대세력에 대한 공개적 경고의 용도를 가졌다. 버팀과 인내의 집단적 의지임과 동시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배신자 변절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정치담론이었던 것이다.

IV. 결론에 대신하여: 주체사상의 추상화 가능성?

1997년 김정일의 총비서 취임과 1998년의 국방위원장 재추대로 승계 과정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붉은기철학의 주장은 현저히 잦아들었다. 권력이행기의 혼란을 막기 위한 인내와 단결로서의 붉은기철학은 이제 김정일 체제의 공식등장과 함께 인민들에게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주는 메

63)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자,” 「로동신문」 (1996.2.7); “고난의 행군에서 높이 발휘된 7련대의 수령옹위정신,” 「로동신문」 (1996.2.12);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총진군하자,” 「로동신문」 (1997.1.20); “오늘의 고난의 행군은 우리민민을 참된 혁명가로 키우는 혁명대학이다,” 「로동신문」 (1997.1.28) 등을 참조.

64) 1997년 신년공동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나가자,” 「로동신문」 (1997.1.1).

65) 대표적인 것으로는 “붉은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중앙방송」 논설 (1997.1.12); 「북한정책자료」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7.7 pp. 108~110; “붉은기사상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자,” 「로동신문」 (1997.2.26);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자,” 「로동신문」 (1997.5.1).

시지로 바뀌어야만 했고 이는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으로 표면화되었다.⁶⁶⁾ '고난의 행군', '사회주의 강행군' 등 붉은기철학과 함께 등장했던 대중동원의 구호들도 이제는 강성대국의 등장과 함께 차츰 그 횡수가 줄어들었다. 대신에 지금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과 경제강국을 이루기 위한 '강계의 혁명정신'과 '제2의 천리마대진군'이 강조되고 있다.⁶⁷⁾ 1950년대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빈손으로 해야 했던 천리마운동의 대중동원 구호가 권력승계 완료 이후 강성대국을 이루기 위한 또 한 번의 대중동원 구호로서 주창되고 있는 것이다.

위기를 버티고 견뎌내야 한다는 수령사망 이후의 '붉은기철학'이 이제는 김정일 체제의 등장과 함께 일종의 부국강병론으로서 '강성대국론'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강성대국론은 1990년대 위기상황에서의 체제수호 성격보다는 이제 위기타개 이후 새로운 긍정적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담론이라 할 수 있다.⁶⁸⁾ 기존의 붉은기철학과 달리 강성대국론은 권력승계 이후 새로운 희망적 동원구호로 제시됨으로써 체제안정과 사회통합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1990년대 위기상황의 도래에서 등장한 '우리식 사회주의'와 수령사망 이후 위기심화과정에서 등장한 '붉은기철학' 그리고 권력승계 이후 최근의 위기안정화 시기에 등장하고 있는 '강성대국' 등은 주체사상이 순수 이데올로기로 격상된 이후 정당화와 동원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

66) 강성대국론에 대한 북한의 체제적 설명으로는 "정론 강성대국," 「로동신문」(1998.8.22);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1998.9.9); "주체의 강성대국," 「로동신문」(1998.8.4) 등을 참조.

67) 강계의 혁명정신은 1998년 1월 김정일의 자강도 강계 현지지도를 계기로 개념화되었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은 1998년 3월 김정일의 성진제강 방문을 계기로 등장하여 199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공식화되었다.

68) 1998년에 이루어진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완료는 수령사망 이후 위기가정이 정치적으로 마감되었음을 의미하고 경제에서도 북한이 심각한 위기는 벗어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1999년 5월 찰스 카트만 미특사의 "북한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발언과 5월 28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의 "북한경제 안정화" 보도, 10월 6일자 「인민일보」 기자회견에서 백남순 위무상의 '식량문제 완전 해결 전망' 발언 등에서 짐작되고 있다.

행한 정치담론들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북한의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시사점이 도출되는 바, 1990년대 위기상황에서는 이미 순수이데올로기로 격상된 고도로 추상화된 주체사상이 직접 대중에게 위기극복과 체제안정의 정당화작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체사상의 하위담론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하위담론들은 원칙적으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긴 하지만 그 체계나 논리 수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추상수준이 보다 하향화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주체사상이 아닌 하위담론의 반복적인 체제정당화 작업, 그리고 '버티고 인내하자'는 다짐이나 '강성대국을 이룩하자'는 희망 등이 북한에서 현실적인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대중들에게 주체사상의 체제규정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주체사상의 내용과 원리를 잘 알지 못하는 대중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향후 북한의 이데올로기의 변화가능성을 전망하면서 하나의 가능성을 상정하게 한다. 즉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추상화 가능성이 그것이다. 중국의 경우 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을 고도로 추상화시키고 이를 개혁개방을 위한 실천적 지침들, 즉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나 '중국특색적 사회주의' 등과 분리하는 것은 지금 중국식 사회주의의 방향성을 고려해 볼 때 지배이데올로기의 추상화를 통해 본래 맑스레닌주의의 방향과 배치되는 중국식 발전전략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⁶⁹⁾

이를 감안한다면 1980년대 주체사상이 순수이데올로기로 결합된 이후 1990년대 위기상황에서 등장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하위담론들은 북한에서도 지배이데올로기의 추상화와 이에 기반한 현실정책의 변화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즉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의 순수이데올로기는 고도로 추상화시켜 명목적으로 고수한 채 다른 한편으로 그 하위담론들로 대중에 대한 정당화 작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주체사상의 규정성과 지배력이 완화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

69) 이에 대해서는 백병훈, "중국사회주의이데올로기의 탈교조화 경향분석: 마르크스주의의 재해석과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을 중심으로," 「공안연구」, 1집 (경찰대학교, 1989), pp. 163~194 참조.

는 것이다. 1950년대 실천이데올로기로 등장한 주체사상이 결국은 애초의 순수이데올로기인 맑스레닌주의를 대체했던 그간의 과정은 역으로 향후 북한에서도 순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은 고도로 추상화되고 오히려 체제정당화를 위한 하위담론들은 주체사상으로부터 분리될지도 모른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물론 아직은 이것이 기대에 불과한 것이지만 말이다.